



박세리

박세리가 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헌트골프장에서 열린 연습라운드 2번홀에서 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리플 크라운’ 도전장

오늘 LPGA 캐나다오픈 출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부상을 당해 기관했던 박세리(29·CJ)가 컨디션을 회복하고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장을 냈다.

이미 US여자오픈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한 차례씩 제패한 박세리는 10일(이하 한국 시간) 오후부터 4일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골프장(과72·6천611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CN캐나다여자오픈에 예정대로 출전해 ‘트리플 크라운’과 시즌 2승, 그리고 한국 선수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대회장에 일찌감치 도착했지만 브리티시여자오픈 때 대진 완쪽 팔꿈치에 다소 통증이 남아 있어 출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박세리는 이날 연습 라운드를 치른 결과 경기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코스가 길지만 넓어서 라운드 당 3언더 점도는 쳐야 우승권에 들 수 있다고 본 박세리는 컨디션이 좋아 우승에 욕심을 낼 만하다고 전해왔다.

박세리는 10일 오후 10시11분 10번 홀에

◇‘트리플 크라운’=미국, 영국, 캐나다 등 미국 남녀프로골프 투어대회에 편성된 3개국 내셔널팀이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으로 남자 선수는 타이거 우즈, 여자 선수는 아니카 소렌스탄이 막아 봤을 뿐이다.

서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티 커(미국), 그리고 브랜디 버튼(미국)과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이미나(25·KTF)는 11일 오전 1시22분에 역시 유력한 우승 후보인 장정(26·기업은행), 니콜 카스트랄리(미국)와 티오프할 예정이다.

시즌 3승 사냥에 나서는 김미현(29·KTF)은 박세리 바로 다음 조인 10일 오후 10시22분 낸시 스크랜턴(미국), 훌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US여자아마골프 ‘한류 돌풍’

김인경·제인 박 등 18명 64강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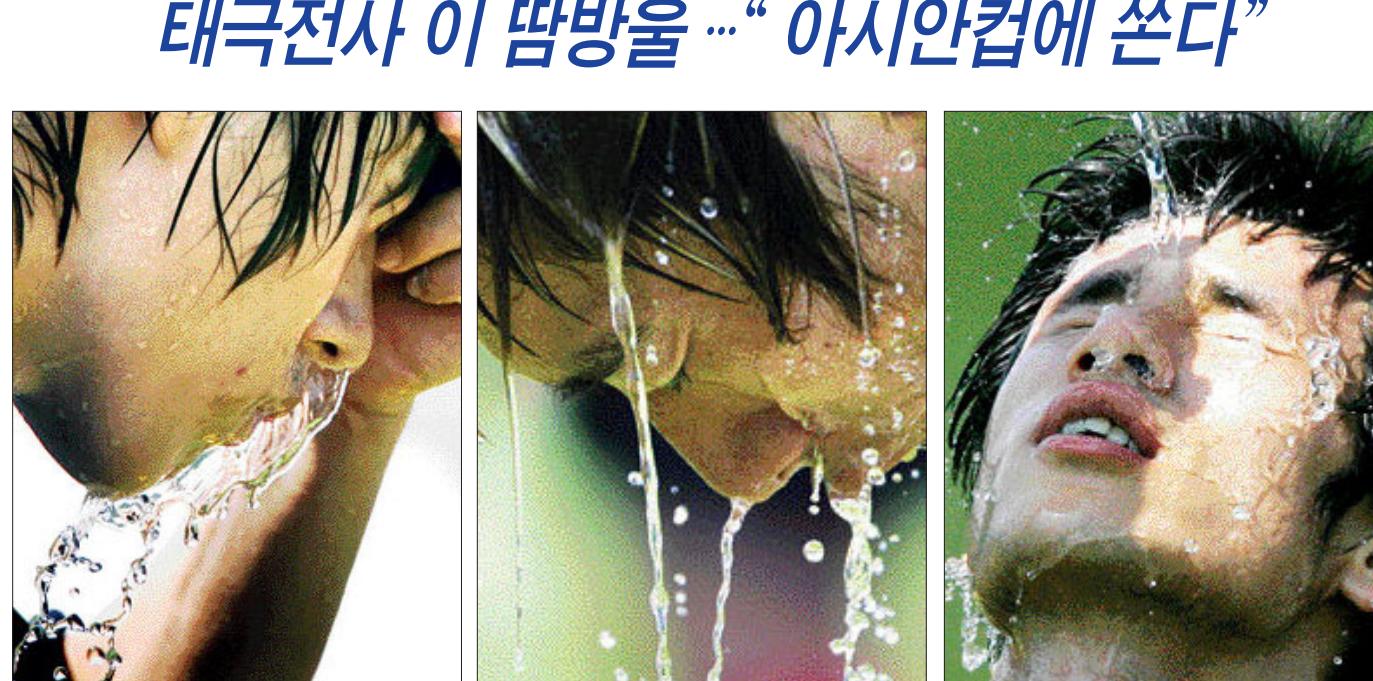
세계 여자 아마추어 골프의 최고수를 가리는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도 ‘한류’ 물결이 거셌다.

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노스플레이 페인리지골프장(과71)에서 끝난 36홀 스트로크플레이에서 김인경(18·한영외고)과 재미교포 티파니 조가 공동 2위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64강 매치플레이에 진출했다.

또 국가대표 허미정(17·대전체고)과 재미교포 제인 박(19)은 공동 4위로 거둔히 올랐고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장타소녀’ 장하나(14·대원중)는 공동 20위에 올라 역시 매치플레이 본선에 나섰다.

작년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미 주니어여자랭킹 1위에 올랐던 김인경은 이븐과 71타를 쳐 함께 1언더파 141타로 페이지 매켄지(미국·139타)에 2타차 공동 2위를 차지,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

올해 2월 양희영(17)이 우승한 호주ANZ 레이디스마스터스에서 선전을 펼쳐 국내 골프팬들에게도 낮이 익은 교포 티파니 조는 3



태극전사 이 땅방울 … “아시안컵에 쏜다”

무더위 속에 치뤄질 아시안컵예선 대만전을 앞두고 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끼얹고 있다. 원쪽부터 백지훈, 김정우, 정조국,

베어벡號 이원체제로 운영

국가대표·올림픽 대표로 나눠 … 11월 한·일 평가전 대비

2007 아시안컵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팀과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대비한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팀 베어벡 감독이 조만간 이원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베어벡 감독이 현재 2007아시안컵 예선 대만전과 준비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베어벡 감독과 기술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올림픽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파주 소집훈련에 선발된 23세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올림픽 대표팀을 꾸밀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어벡 감독을 도와 올림픽 대표팀을 전담해서 지도할 코칭스태프를 추가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압신 고트비 코치, 흥명보 코치, 코사 GK 코치 등을 국가대표팀만 전담하고,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를 대상으로 올림픽 대표팀을 꾸려갈 2~3명의 코칭스태프

를 새로 뽑아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 대비한다는 게 협회와 베어벡 감독의 생각이다. 말 그대로 베어벡(號)가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것.

‘베어벡호 이원체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11월 예정된 한·일 올림픽대표팀 친선 평가전부터다.

베어벡 감독은 애초 11월14일과 21일 두 차례 예정된 한·일 올림픽대표팀 평가전을 통해 ‘숙명의 한일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1월15일 아시안컵 이란 원정이 겹쳐지는 바람에 한일전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연봉 51억

작년보다 40% 올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년차를 맞는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의 연봉이 지난해 대비 40% 상승했다.

영국에서 맨유와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JS리미티드 김정수 팀장은 8일 “이날 오전 구단측과 최종 미팅을 갖고 구단측에서 제시한 연봉 40% 인상에 합의했다”며 “협상은 99% 끝났다.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200만파운드(약 37억원, 세금 포함)의 연봉을 받았던 박지성은 이번 인상으로 무려 280만파운드(약 51억4천만원, 세금 포함)에 달하는 고액 연봉자 대열에 끼게 됐다.

특히 박지성은 주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돼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축구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우뚝 서게 됐다.

김 팀장은 “맨유 내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인상분을 약속받은 것”이라며 “팀에서도 베스트 11에 드는 고액 연봉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봉협상을 마무리진은 박지성은 오는 12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울드트레포드에서 펼쳐지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비야FC와 마지막 평가전을 가진 뒤 20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풀豕과 흥경기로 치러지는 2006-2007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출격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기·현

3경기 연속골

스웨덴 1부리그 팀 평가전서 5골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호’ 설기현(27·레딩 FC)이 또 득점포를 쏘아 올렸다.

설기현은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웨덴 프로축구 1부리그 오르그리테 IS와 원정 평가전에서 후반 막판 스티브 시드웰의 오른쪽 크로스를 침착하게 헤딩으로 꽂아넣어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설기현은 지난달 20일 리시즌 디아이몬즈 전에서 레딩 이적 데뷔골을 터뜨린 이후 8경기에서 5골 3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스웨덴 투어에서는 3경기 연속골 행진이다.

레딩은 미국 대표 보비 콘베이가 팀의 첫 골을 넣은 뒤 중앙 미드필더 안드레 바이기 가 퇴장당해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14분 존 오스터 대신 투입된 설기현이 해결사 역할을 특별히 해냈다.

설기현은 투입되자마자 날카로운 터닝슛을 날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콘베이에게 크로스를 찔러주는 등 공세를 주도했다. 레딩은 설기현의 활약 속에 프리 시즌 평가전 전적 8승1무를 기록했다.

스티브 코렐 레딩 감독은 “약팀을 상대해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프리미어리그에서 격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만난 팀은 그래도 강했다. 우리 팀은 볼 소유가 느슨했지만 계속 전방에 볼을 투입했고 그 결과 마지막 순간 설(기현)이 해냈다”고 설기현의 플레이를 칭찬했다.

레딩은 영국으로 돌아와 12일 밤 네덜란드 명문 폐네르트와 시즌 개막 이전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오는 19일 미들즈버러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